

# 조선시대(朝鮮時代) 말군(裌裙)의 실물 제작법에 관한 연구

-인천 석남동 출토 말군을 중심으로-

정미숙\* · 송미경\*\*

서울여자대학교 의류학과 강사\* · 경기도박물관 학예연구팀 연구원\*\*

## Study on Manufacturing Actual *Mal-gun* from Joseon Dynasty

-Based on the Excavated *Mal-gun* from Seok-nam-dong, In-chcheon-

Mi-Sook Jeong\* · Mi-Kyung Song\*\*

Lecturer, Dept. of Clothing Science, Seoul Women's University\*

Researcher, Curatorial Team, Gyeonggi Provincial Museum\*\*

(2007. 7. 18 투고)

### ABSTRACT

In 2004, *Mal-gun*(裌裙) was excavated from a plastered tomb in Seok-nam-dong, In-cheon. This tomb is assumed to be from an upper-class woman. The excavated *Mal-gun* was used to fill in the empty spaces in coffin, and it was seriously damaged and foxed dark.

The *Mal-gun* is made with thin, loose *Sook-cho*(熟絹), and the width of the fabric is 70cm. Both sides of the crotches are overlapped in front, and the back is opened. The waist straps are detached, leaving a little part to show the width of the straps. The hems of the *Mal-gun* are sewed straight, without any pleats, except some spaces for the feet to go through.

This study compared the *Mal-gun* of Joseon Dynasty from the documentary records and picture records with the excavated *Mal-gun* from Seok-nam-dong, In-chcheon. Also, actual *Mal-gun* was manufactured according to the excavated *Mal-gun* to study the process of manufacturing and the formation. As a result, the excavated *Mal-gun* has the same form of that shown in *Ak-hak-gwae-bum*, a documentary record from the early period of Joseon Dynasty.

Key words: excavated costume(출토복식), women's clothing(여성복식), *Mal-gun*(裌裙: 말군), reconstruction(복원), sewing method(바느질 법)

## I. 서론

2004년 12월 22일 인천 석남동 도로공사 중에 회곽묘가 발견되었다. 회곽묘에서 미라 상태의 여자 시신과 염습의가 수습되었다. 수습된 유물은 복식류 16건 33점과 치관제구 13건 등 총 50여점이다. 이 무덤은 무연고로 피장자의 신분과 연대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의복의 형태와 직물의 특성으로 미루어 보아 15세기로 추정하고 있다.<sup>1)</sup> 수습된 유물 중에 보공용으로 사용된 말군 1점이 포함되어 있다. 말군의 출토는 국내에서 처음 보고되어 그 동안 문헌과 회화 자료로만 연구되었던 말군의 대한 실제 형태를 알 수 있게 되었다.

조선시대 말군(裵裙)은 바지통이 넓으며 뒤가 트이고 활동하기 편하게 만들어진 기능적인 바지로 기마용(騎馬用)과 무용복(舞踊服)으로 착용되었다.

말군에 대한 선행 연구는 문헌과 회화 자료를 기초하여 연구한 논문<sup>2)3)</sup>과 이를 바탕으로 고증 복원된<sup>4)5)</sup> 바 있지만 실물을 대상으로 연구된 것은 없다. 따라서 인천 출토 말군의 실물복원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말군에 제작과정을 통하여 조선 전기 말군 실물 형태를 파악하고, 구성법과 바느질법을 연구하여 실질적인 자료를 제공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제한점은 회화자료 연구시 화가와 시대의 화풍으로 인한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 II. 조선시대 말군의 문헌 및 형태 고찰

### 1. 말군의 문헌적 고찰

조선시대 문헌에 나타난 말군의 기록은 『世宗實錄』·『世祖實錄』·『國婚定例』·『尙房定例』와 昭顯世子嘉禮都監儀軌부터 高宗明成后嘉禮都監儀軌 등이다.

『世宗實錄』<sup>6)</sup>과 『世祖實錄』<sup>7)</sup>에는 “양반집 부인은 말을 탈 때 반드시 말군을 착용해야한다”는 내용과 “중들은 말군 착용을 금한다”는 것으로 보아 조선 전기에는 기마용 말군이 일정신분 이상 허용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 외 『樂學軌範』<sup>8)</sup>에는 무용복으로서의 말군 기록이 있다.

조선시대 왕조실록에 나타난 말군의 소재에 대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 왕비의 裵襪裙 소재는 帛綾·白苧布가 쓰였고<sup>9)</sup>, 龜城君 夫人의 襪裙坎은 白段子 裵襪裙, 生綃 襪裙<sup>10)</sup>이 사용되었고, 義昌君 夫人의 裵裙坎으로 花紋白緞 1匹의 기록<sup>11)</sup>이 있다. 또한 가례 시 물목을 정리한 조선시대 嘉禮都監儀軌<sup>12)</sup>에는 妃·嬪 과 尙宮이하 騎行內人의 말군의 기록이 있으며, 기록된 말군의 종류에는 單裵裙·裵襪裙·膝襪單裵裙으로 3종류가 있다. 말군에 사용된 직물에는 비·빈은 花紋白緞·白花紋綾·白綾白疋緞·生白綃이며, 상궁이하 기행나인은 모두 白鼎紬이다. 또한 말군 1件 제작하는데 소요되는 직물은 왕비는 1匹, 왕세자빈은 23尺, 25尺이며, 상궁이하 기행나인은 4~5件을 만드는데 1匹의 기록이 있다.

『國婚定例』<sup>13)</sup>, 『尙房定例』<sup>14)</sup>에 기록된 말군의 종류는 모두 單裵裙이다. 직물은 淑儀·大君夫人·公主·翁主는 白綾·生綃가 사용되었고, 말군 1件을 만드는데 사용된 직물은 모두 30尺이다. 尙宮이하 기행나인은 白鼎紬와 白綿布가 사용되었고 말군을 만드는데 사용된 직물은 4~5件을 만드는데 1匹이 소요되었다.

위의 기록에 나타난 말군의 색은 모두 백색이며, 말군을 만드는데 사용된 실은 모두 白眞絲 또는 白紬絲가 사용되었으나, 1681 『肅宗仁顯后嘉禮都監儀軌』의 騎行內人의 말군에는 鴉靑絲·柳靑絲<sup>15)</sup>의 기록도 있다.

또한 “纓子白疋緞并入, 纓子一并入”<sup>16)17)</sup>, “纓子草綠綃各半幅肆尺, 纓子草綠廣的半幅肆尺”이라는 기록<sup>18)</sup>은 바지 부리에 있는 끈의 내용으로 여겨진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을 정리하면 조선시대에는 신분에 따라 말군을 만드는데 사용된 직물의 尺數의 차이가 있었으며, 직물에 있어서도 왕실에서는 縷(綾)과 綃(納)가 많이 사용되었으나 상궁들이나 기행나인은 주로 면포(綿布)나 백정주(白鼎紬)가 사용되었다.

## 2. 말군의 용도에 따른 형태 고찰

말군은 궁중무용에서 동기(童妓)와 여기(女妓) 그리고 처용무(舞踊舞)를 출 때 착용하는 무용복의 용도와, 가례도감의례와 같은 기록화 그리고 풍속화 등에서 말을 탈 때 간편함을 위해 치마나 포(袍) 위에 착용한 기마용(騎馬用)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 1) 무용복 말군

무용복 말군의 형태를 알 수 있는 기록은 『樂學軌範』<sup>19)20)</sup>과 『園幸乙卯整理儀軌』<sup>21)</sup>, 조선후기의 역대 進饌·進宴儀軌<sup>22)</sup> 등이 있다. 무용복(舞踊服)은 착용자에 따라 동기(童妓)·여기(女妓)·처용(處容)의 것으로 분류되며, 형태에 따라 5가지로 분류된다 <표 1>.

무용복 말군의 형태를 분석해 보면, 연화대(蓮花臺) 동기의 말군 <표 1-①·②>은 비록 시대 차이가 있으나 어깨 끈의 유무의 차이 일 뿐, 형태는 동일한 모습으로 허리 주름은 맞주름 2~3개를 잡아 겹쳐 고정된 것처럼 보이며, 부리 주름도 허리로부터 내려와 동일하다. 여기(女妓)의 말군 <표 1-③·④>과 처용군(舞踊裙)<sup>28)</sup> <표 1-⑤>은 어깨 끈의 유무와 허리와 부리의 주름이 전체에 분산된 개더형 주름으로 주름의 수가 많거나 적게 표현되었지만 전체적으로 같은 유형이다. 처용군은 처용무(處踊舞)의 처용이 착용한 말군으로 악학계범에는 처용군(處容裙)이라 표기되어 있으나 조선 말기 조선 후기 진연(進宴)·진찬(進饌) 의례<sup>29)</sup>에 말군(襪群)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또한 그 형태를 보면 바지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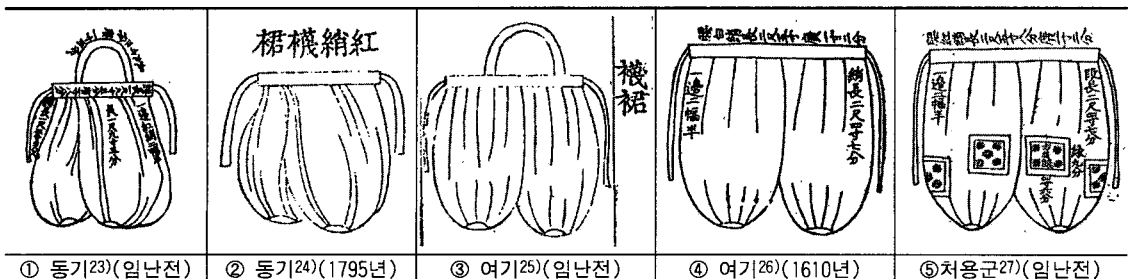
사각형 형태의 방슬(方膝)이 달려 있다는 것만 다를 뿐 형태와 치수는 여기 말군 <표 1-④>과 동일하여 무용복 말군에 포함시켰다. 조선 후기의 진연·진찬의 의례의 말군<sup>30)</sup>의 형태는 <표 1-④·⑤>와 동일하다. 따라서 무용복 말군의 형태는 뒤가 트인 풍성한 바지라는 점은 시대에 따라 크게 변화된 것은 없다. 그 외 어깨끈의 유무와 허리와 부리의 주름의 차이, 동기와 여기의 치수의 차이는 시대에 따라 있다.

무용복 말군의 직물과 색은 동기는 홍초(紅綃), 여기는 백색의 사(紗)·라(羅)·능(綾)·초(綃)이며 처용군은 홍(紅)·흑(黑)·남(藍)색의 주(紬)이다. 따라서 동기·여기의 말군과 처용군의 가장 큰 차이는 색상의 차이로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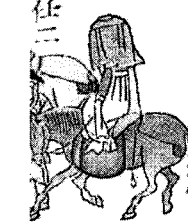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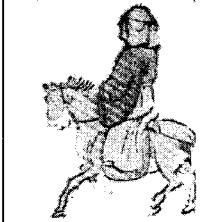

### 2) 기마용 말군

기마용 말군에 대한 모습은 의례의 반차도와 조선 후기의 풍속화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반차도(班次圖)에는 尙宮·侍女·乳母·騎行內人 등이 말군을 착용한 모습이 그려져 있다. 그러나 반차도에 표현된 말군의 그림은 화가의 시각과 당시의 화풍에 따라 생략되거나 간략하게 표현되었고, 의례의 내용과 다른 색으로 채색된 것도 있어 본 연구는 말군의 형태가 비교적 잘 구분되는 『仁祖壯烈后嘉禮圖鑑儀軌』말군 <표 2-①>, 『園幸乙卯整理儀軌』말군 <표 2-②·③>, 『純祖純元后嘉禮圖鑑儀軌』말군 <표 2-④>, 諺闕 班次圖 말군 <표 2-⑤>을 선택하여 형태를 비교하였다.

<표 1> 무용복 말군



〈표 2〉 기마용 말군

				
① 「仁祖壯烈后嘉禮圖鑑儀軌」(1638) <sup>31)</sup>	② 「園幸乙卯整理儀軌」(1795)	③ 「園幸乙卯整理儀軌」(1795) <sup>32)</sup>	④ 「純祖純元后嘉禮圖鑑儀軌」(1802) <sup>33)</sup>	⑤ 詣闕 班次圖 (18세기 후반) <sup>34)</sup>



〈그림 1〉여기    〈그림 2〉동기    〈그림 3〉남자

이들 그림에서 표현된 말군의 형태를 살펴보면 〈표 2-①〉은 발을 덮을 정도로 길이가 길며, 허리 주름은 옆선에 한 번을 크게 잡아 고정된 것처럼 보인다. 바지 부리에는 주름이 없다. 〈표 2-②〉는 허리에는 주름이 2~3개 정도가 잡혀 있으며 부리에 주름이 없이 옆으로 펼쳐 보인다. 〈표 2-③〉은 〈표 2-②〉와 동일하나 부리를 묶은 듯 잘록하다. 〈표 2-④〉는 허리 주름이 옆선에 있으며 부리에는 주름이 없으나 부리자락이 등글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봉제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말군의 색은 기록과 달리 황색이다. 〈표 2-⑤〉는 허리에 주름이 고르게 잡혀 있으며, 부리는 오므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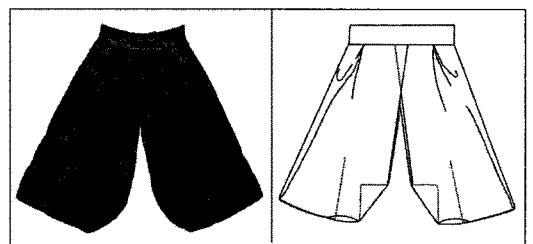
위 그림에 보이는 말군의 착용 모습에서 공통점은 모두 마치 치마를 입은 듯 말군의 폭이 넓다. 형태에 따라서 허리의 주름이 전체에 고르게 있는 개더형과, 허리의 여유분을 한 쪽에 처리한 주름 2가지 형태로 분류된다. 부리의 형태는 발이 들어가는 분량만 남기고 나머지는 주름 없이 봉제되어 펼쳐지거나, 부리 전체를 묶거나 또는 부리 둘레 전체에

주름을 주어 부리를 좁게 하는 형태로 분류되었다. 하지만 이 또한 화가의 화풍에 따른 생략이 있었을 것을 배제할 수 없다.

조선후기의 풍속화에는 여기 〈그림 1〉<sup>35)</sup>·동기 〈그림 2〉<sup>36)</sup>·남자 〈그림 3〉<sup>37)</sup>의 기마용(騎馬用) 말군이 확인된다. 그 형태는 반차도에서 볼 수 있는 궁중 여자의 말군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부리를 펼쳐 보이는 것은 없으며 모두 오므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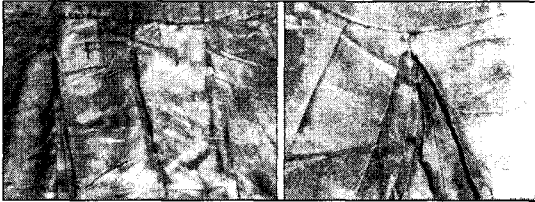
## II. 인천 석남동 출토 말군

인천 석남동 출토 말군은 수습 당시 시점이 겹쳐 나와 있는 상태로 접혀 있었으며 보공용으로 사용되었다. 유물의 색은 갈변되어 원래의 색을 알 수 없었으며 많이 열화된 상태였다 〈그림 4〉. 소재는 매우 얇고 성글며 부드러운 물성을 가진 두께 0.15cm의 숙초(熟絹)로 직물의 폭은 70cm의 광폭이다.<sup>38)</sup> 인천 출토 말군의 형태는 양 가랑이가 앞 중심에 13cm정도 겹쳐 있었으며, 뒤는 완전히 트여 있는 바지 형태이다. 말군은 바지 길이 117cm, 허리



〈그림 4〉 인천 석남동 출토 말군 앞

나비 13cm, 허리둘레 128cm이며, 허리끈은 모두 떼어진 상태였으나 허리 안쪽으로 나비 8cm의 허리끈 조각이 남아 있었다. 바지 가랑이는 70cm 광폭의 속초 3폭 반을 연결하였고, 허리 주름은 허리둘레를 제외한 여유분을 옆선에서 3개의 맞주름<그림 5>을 잡아 고정하였다. 바지 배래는 부리 안쪽 끝에서 위로 21cm, 부리쪽으로 17cm를 대각선으로 잡아 온박음 한다<그림 6>. 바지 부리는 배래분 17cm, 발이 들어가는 부리 21cm를 제외한 나머지 여유분은 안쪽에서 반을 접어 4겹을 한꺼번에 일자로 수직 감침 하였고 주름은 없다. 부리 안쪽에는 2cm가량의 실밥이 앞뒤에 있었는데 이것은 조선시대 출토복식의 행전에서 보이는 고리<sup>39)</sup>가 달렸던 흔적 또는 부리를 오므리는 끈이 달렸던 흔적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림 5> 인천 석남동 출토 말군 맞주름 걸·안



<그림 6> 인천 석남동 출토 말군 배래의 안

### Ⅲ. 인천 석남동 출토 말군 복원

#### 1. 소재 선택

인천 출토 말군을 복원하기 위한 유물과 동일한 폭의 熟絹를 구할 수가 없었다. 이에 속초와 느낌이 유사한 조직이 성글고 광택이 있는 無紋生紗를 정

련하여 사용하였다. 직물의 폭 110cm 무문생사 8마를 유물의 폭인 70cm에 맞추어 사용하였다. 직물의 색과 봉제에 사용된 실은 유물의 빛이 푸른 갈색으로 변하여 원래의 색을 확인 할 수 없지만, 문헌의 기록에 따라 백색을 사용하였다.

#### 2. 복원 말군의 치수와 마름질 방법<sup>40)</sup>

1) 바지폭: 길이 119 cm, 폭 70cm 7장을 재단하여 그 중 한 장은 반을 나누어 각각 3폭 반씩 준비한다.

2) 허리: 둘레 130cm, 폭 14cm(골선)를 직사각형으로 재단한다.

3) 허리 끈: 허리끈은 떼어진 상태로 길이를 알 수 없으나 유물에 남아 있는 끈 폭 8cm를 참고하였다. 끈 길이는 조선시대 전기 치마와 바지 끈의 길이를 참고 하여 임의로 83cm로 정하였다. 끈 폭은 나비 20cm(골, 길이 85cm 2장을 재단한다.

4) 부리 안단: 가로 32cm 세로 17cm 4장을 재단한다.

#### 3. 바느질 순서와 부분 바느질 법

바느질의 순서는 바지 폭 잇기, 가랑이 안쪽과 부리 끝의 시접정리, 부리 덧단달기, 허리끈과 허리 달기, 부리 정리하기 순으로 하였으며, 바느질 순서는 편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말군의 제작에 사용된 바느질법은 온박음·흡질·공그르기·수각감침 이다.

다음은 말군을 만드는 바느질 순서대로 그 방법을 설명하였다.

##### 1) 바지폭 잇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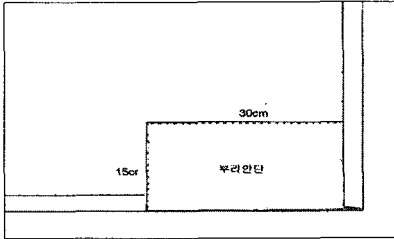
바지 가랑이는 3폭 반을 온박음으로 연결하여 시접은 입어서 뒤쪽으로 쥐는다. 이 때 반폭이 앞으로 온다.

##### 2) 가랑이 안쪽과 바지밑단 시접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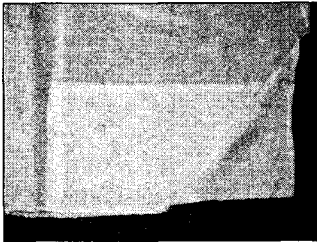
시접은 1cm를 2번 접어 0.5cm로 공그르기 한다.

3) 바지 부리 덧단 달기 <그림 7·8>

가로 30cm×세로 15cm에 시접을 1cm 두고 부리 안 앞뒤에 각각 한 장씩 홈질하여 붙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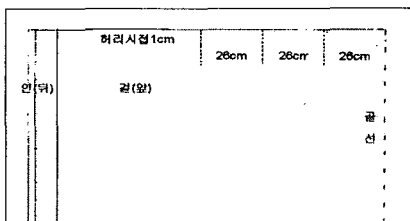
<그림 7> 부리 안단 도식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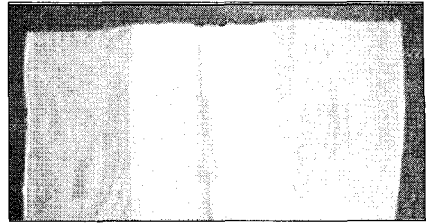
<그림 8> 부리 덧단 완성

4) 허리 주름 잡기 <그림 9·10>

3폭 반을 이은 가량이 전체 폭에서 앞쪽 21cm와 뒤쪽 23cm를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옆 주름 분으로 주름 분량의 반을 접어 골선에서 26cm 간격으로 3번을 표시하고 허리에서 아래로 2cm를 온박음 한다. 주름분의 반을 접은 골선의 중심을 눌러주어 13cm씩 양쪽으로 나누어 3개의 맞주름을 만든 후, 한 자리에 고정한다. 다른 한쪽도 이와 동일하다.



<그림 9> 옆선 주름 도식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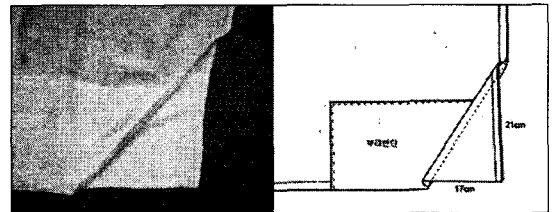
<그림 10> 옆선 3중 맞주름 완성

5) 허리 만들기, 허리 달기

허리둘레 128cm×나비 13cm(골선)의 허리 양 끝에 83cm×8cm(골선)의 허리끈을 단다. 허리가 준비 되면 바지의 양 가랑이를 앞 중심에서 13cm정도 오른쪽이 위로 가게 서로 겹친 후 허리의 겹과 바지의 겹을 마주대고 온박음 한 후 허리 안쪽에서 공그르기 한다.

6) 바지 배래 만들기 <그림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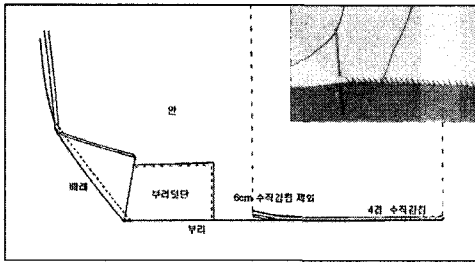
바지 배래는 안쪽 부리 끝 17cm, 위로 22cm를 대각선으로 잡아 시접 0.8cm를 접은 후 온박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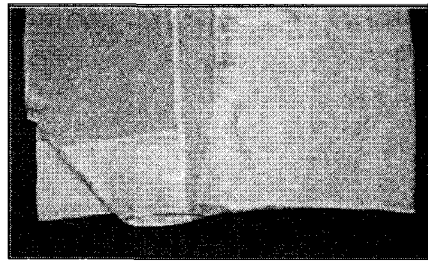
<그림 11> 배래 완성, 도식화

7) 부리와 여유분 처리 <그림 12·13>

바지 부리의 처리는 배래분량 17cm, 부리 21cm를 제외한 나머지 분량을 안쪽에서 반으로 접은 후 부리 쪽에서 6cm를 제외한 나머지를 수직 감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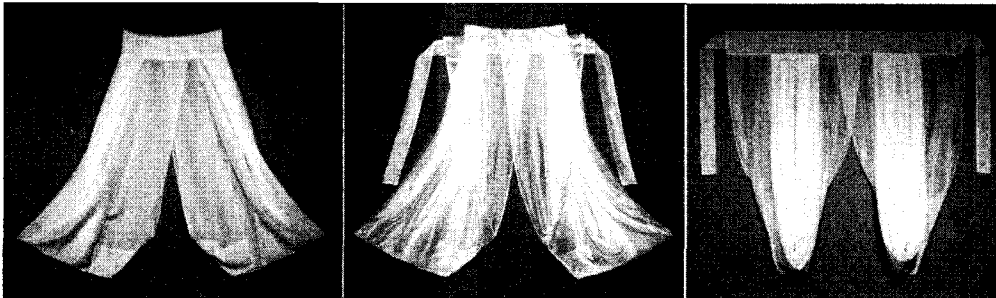


<그림 12> 부리 도식과 수직 감침



<그림 13> 부리 여유분 완성

### 8) 말군 복원 완성 <그림 14>



<그림 14> 복원된 말군 앞, 펼친 모습 뒤, 펼친 모습 앞

### 9) 복원말군 착용 모습

<그림 15>는 안에 치마 2벌을 겹쳐 입고, 그 위에 말군을 착용한 모습이다. 저고리는 16세기 저고리를 복원한 것을 착용하였다. 복원된 말군을 평면

에 놓은 상태에는 부리에 주름이 없으나 그것을 착용한 모습은 부리에 주름을 준 듯 볼륨감이 생기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옆모습은 말을 댔을 때를 가정하여 앉은 모습으로 마치 치마를 입은 듯 보인다.



<그림 15> 복원된 말군 착용: 앞·뒤·앉은 옆 모습

#### IV. 조선전기 『樂學軌範』의 말군과 인천 석남동 복원말군의 형태 비교

조선 전기의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인천 석남동 출토 말군과 조선 전기의 기록인 『樂學軌範』<sup>41)</sup>의 동기(童妓), 여기(女妓)의 말군 치수와 형태를 비교하였다. 치수는 『경국대전(經國大典)』의 포백척<sup>42)</sup>의 기록에 따라 1尺 당 46.8cm로 환산하였다. 이를 정리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악학계범에 있는 동기(童妓) 말군 <그림 1>은 허리 주름이 맞주름 형태로 인천 출토 말군과 비슷하나 인천 출토 말군은 어깨 끈이 없고 부리 부분에 주름이 없다는 것과 동기가 키가 작은 성장기에 있기 때문에 동기 말군의 치수가 작다는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복원된 말군의 <그림 15>의 말군 착용 모습을 보면 말군의 부리에 구성상에는 주름이 없으나 착용 모습은 자연스럽게 오므려져 마치 부리에 주름을 준 것처럼 보여 악학계범 동기의 말군 형태와 매우 유사하다. 여기(女妓)의 말군 <그림 3>은 허리와 부리전체에 개더형 주름으로 주름의 형태는 인천 출토 말군과 다르며, 치수에 있어서는 바지 길이는 비슷하나 허리둘레와 허리폭에 차이가 있다. 또한 동기와 여기의 바지폭은 2폭 반이며 인천 출토 말군은 3폭 반으로 바지폭에도 차이가 있으나 『樂學軌範』에는 정확한 폭의 치수가 없어 그 차이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말군의 전체 직물

소요량은 인천 석남동 말군은 약 20척 정도가 사용되었으나 『樂學軌範』에는 치수 기록에 빠진 부분이 있어 전체적인 직물 소요량을 파악하기 어렵다.

말군의 직물 사용은 동기는 홍초(紅綃)이나, 여기는 백색의 사·라·능·초의 다양한 직물을 사용하고 있어 조선시대에 기록된 기마용 말군의 색이 모두 백색이며 다양한 견직물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 큰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인천 석남동 말군은 복원 상태에서 착용했을 때 『樂學軌範』의 동기 말군과 형태는 매우 유사했으며 색상과 크기에는 차이가 있었다.

#### V. 결론

조선시대 말군(裋裙)은 바지통이 넓고, 뒤가 트여 있어 말을 탈 때 간편하도록 하의(下衣) 위에 덧입었던 기마용(騎馬用)바지라 할 수 있으며, 무복(舞服)으로도 착용되었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출토된 조선 전기로 추정되고 있는 여자 말군의 실물제작에 관한 연구이다. 조선 시대 문헌기록을 통하여 말군의 형태·용도·소재·색을 알아보았으며 인천 출토 말군과 가장 근접한 시기의 기록인 『樂學軌範』에 나타나 있는 말군 형태와 유물과의 형태를 비교하여 유사점과 상이한 점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樂學軌範』의 동기 말군은 인천 출토 말군을 복원한 상태를 착용하였을 때 그 형태가 매우 비슷하였으며 어

<표 3> 인천 출토 말군과 악학계범의 치수 환산표

	착용자	소재	치 수(1尺=46.8cm)						
			바지길이	바지 폭	허리둘레	허리 폭	어깨 끈 길이	허리 끈 길이 / 폭	전체 직물소요량
악학계범	동기	홍초	1尺9寸5分	2폭 반	1尺9寸5分	1寸 5分	9寸3分	1尺 5寸3分/-	
			91cm	-	91cm	7cm	44cm	72cm/-	
	여기	백색비단 또는 사,라,능,초	2尺4寸7分	2폭 반	2尺 5寸	1寸 2分	有	-	
			116cm	-	117cm	6cm	-	-	
인천 출토 말군	상류층 여자	속초(백색으로 추측)	2尺5寸	3폭 반	2尺 7寸3分	2寸 8分	-	- / 1寸7分	약 20 尺
			117cm	70cm 폭	128cm	13cm	無	- / 8cm	70cm 폭 약 10 마 반



깨끗·치수·색상의 차이가 있었다. 여기 말근은 어깨 끈과 주름의 형태, 허리둘레와 허리폭의 치수가 달랐으나 소재와 색은 기마용 말근과 큰 차이가 없었다. 또한 동기·여기의 바지폭은 2폭 반, 인천 출토 말근은 3폭 반으로 차이가 있었으나 동기와 여기에 사용된 직물 폭의 치수를 알 수 없어 정확한 차이는 알 수 없다.

인천 출토 말근은 조선 전기 상류층 여자의 기마용 말근으로, 색은 문헌의 기록에 따라 백색이었을 것으로 추측되며 형태상 가장 큰 특징은 허리의 맞주름 형태와 부리에 주름이 없이 처리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말근을 복원할 때 문헌 자료를 통하여 허리와 부리에 동일한 개더(gather)형 주름을 잡아 구성하였으나, 인천 출토 말근의 복원을 통하여 조선 전기 여자말근의 형태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인천 출토 말근에는 양쪽 모두 떼어진 허리 끈과 양쪽 부리에 끈이 달린 흔적만 남아 있어, 정확한 치수를 알 수 없는 것이 아쉬운 점이다. 이 부분은 앞으로 발굴될 유물을 통해서 보완되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1) 조효숙, 배순화 (2006). 출토복식의 직물 고찰. 인천 석남동 회곽묘 출토복식, 인천광역시립박물관, p. 103.
- 2) 권미세 (1995). 韓國 騎馬服飾文化 研究.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3) 박성실, 김향미 (2005). 조선시대 기능적 馬上衣類의 실증적 고찰. 韓國服飾, 23. 단국대학교 석주선 기념박물관.
- 4)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1995). 服飾-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특별전 도록(23).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p. 100.
- 5) 박성실, 김향미 (2005). 앞의 책, p. 86.
- 6) 世宗實錄 (1429). 11年 2月 5日 (辛巳) ...大小婦女從婢之服 不許襪裙...
- 7) 世祖實錄 (1457). 3年 6月 10日 (壬寅) ...舊俗, 婦人出則乘兜子 外施帷帳 使外人莫敢窺 其乘馬者 亦施面紗束以襪裙 今人例從荷筒 往往便衣卷面紗 恬不爲怪 流俗之弊 一至於此...
- 8) 민족문화추진회 (1985). 국역 樂學軌範 II. 임진왜란 전 본.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 9) 世宗實錄 (1420). 2年 9月 13日 (戊寅) ...帛綾袂襪裙一白苧布襪裙...
- 10) 世祖實錄 (1467). 13年 10月 22日 (甲寅) ...白段子袂襪 生綃襪裙...
- 11) 宣祖實錄 (1603). 36年 3月 18日 (甲戌)...襪裙次, 花紋白段一匹....
- 12) 劉頌玉 (1991). 朝鮮王朝宮中儀軌服飾. 1627년 昭顯世子嘉禮~1866년 高宗明成后嘉禮의 말근기록, 서울: 교학사.
- 13) 國婚定例 (1749). 英祖 25年.
- 14) 尙方定例 (1750). 英祖 26年.
- 15) 劉頌玉 (1991). 앞의 책, p. 344.
- 16) 劉頌玉 (1991). 위의 책. 王世子嬪, p. 257.
- 17) 劉頌玉 (1991). 위의 책. 王世子嬪, p. 260.
- 18) 尙房定例. 앞의 책, 淑儀·大君嘉禮.
- 19) 성현 저, 럽정권 역 (1956). 樂學軌範. 태백산 영인본 (광해군 2년), 서울: 아름출판공사.
- 20) 민족문화추진회 (1985). 앞의 책.
- 21) 園幸乙卯整理儀軌 (1795). 正祖19年, 서울대학교 규장각, p. 105, p. 118.
- 22) 김경실 (2003). 조선시대 궁중진연 복식. 서울: 경춘사, pp. 63~95.
- 23) 민족문화추진회 (1985). 앞의 책.
- 24) 園幸乙卯整理儀軌. 앞의 책. 동기(童妓), p. 49.
- 25) 민족문화추진회 (1985). 앞의 책. 卷 8, 여기(女妓), p. 113.
- 26) 성현 저, 럽정권 역 (1956). 앞의 책. 여기(女妓), p. 643.
- 27) 민족문화추진회 (1985). 앞의 책. 卷 8, 처용(處容), p. 106.
- 28) 김경실 (2003). 앞의 책.
- 29) 김경실 (2003). 위의 책, pp. 68~93.
- 30) 김경실 (2003). 위의 책. 연화대무(蓮花臺舞) 정재(문才) 홍초말근(紅綃襪裙) p. 93, 처용무(處踊舞) 정재(문才) 남말근(藍襪裙) p. 118.
- 31) 劉頌玉 (1991). 앞의 책, p. 4.
- 32) 園幸乙卯整理儀軌. 앞의 책, p. 49.
- 33) 純祖純元后嘉禮都監儀軌 (1802). 純祖 2年, 서울: 서울대학교 규장각, p. 233.
- 34) 고려대학교박물관 (2001). 조선시대 기록화의 세계. 서울: 고려대학교박물관, p. 53.
- 35) 서인화, 진준현 (2002). 조선시대 음악 풍속도 I. 서울: 민속원. 東萊府使接倭使圖. 정선(1676~1759).
- 36) 서인화, 진준현 (2002). 위의 책. 安陵新迎圖. 김홍도(1786).
- 37) 월간 미술 (2004). 김홍도의 붓 끝에 묻어낸 삶 Calendar. 路上風精圖, 김홍도(18세기), 파리 기메국립동양미술박물관 소장.
- 38) 조효숙, 배순화 (2006). 앞의 책, p. 97.
- 39) 이은주 외 (2000). 안동 정삼동 일선문씨와 이응태묘 발굴 조사 보고서. 안동: 안동대학교박물관, p. 208.
- 40) 고부자 (2007). 대전출토 강릉김씨(女) 조선전기 유물. 韓國服飾, 25. 석주선기념박물관, p. 81.
- 41) 민족문화추진회 (1985). 앞의 책, p. 84, p. 113.
- 42) 李恩卿 (1993). 韓國과 中國의 布帛尺에 關한 研究.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82.